

광주서 지역 최대 수공예전 열린다

7~9일 DJ센터서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189개 공방 참여 섬유공예·나전칠기 등 전시·판매... 명품관서 명장 작품 감상도

지역 최대 수공예품 전시 행사인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제2·3전시장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는 재능과 솜씨로 빛어낸 우수 수공예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189개 공방이 참여해 다양한 수공예품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부스는 일반공방관과 공예명품관, 광주 우수공예브랜드(오핸즈) 홍보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작 전시관, 대학관 등으로 구분해 총

271개를 운영한다.

일반 공방관에서는 섬유공예·한지·나전칠기·도자기·목공예품 등 전통 공예 상품을 비롯한 생활자기·천연비누 등 생활용품류, 천연염색·가죽 등 패션 잡화류, 반지·목걸이 등 개성 넘치는 생활공예 상품이 전시·판매된다.

특별전시관으로 꾸며지는 공예명품관에선 지역 공예 명장의 우수한 전통 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우수공예상품인 '오핸즈' 브랜드 상품과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작, 지역 공예산업을 이끌어 갈 예비 공예인을 위한 대학관 전시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채롭다. 전시장 내 체험행사 부스에서는 가죽 팔찌 만들기,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등 나만의 공예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

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관 입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오핸즈 브랜드 상품 지정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된다. 올해는 총 4개의 작품이 광주 대표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됐다. 행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일 "수공예품은 대량 생산품과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과 감성이 담겨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며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지역 공예인에게는 판로 확대 기회로, 시민에게는 공예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강요' DJ센터 사장 해임

광주시 감사서 배임 등 적발... 김상목 전 사장 "사익 없었다"

광주시는 "감사에서 배임 등의 정황이 드러난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김 사장이 특정 업체에 회의실을 무상 임대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의 도서를 센터 홍보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의 수의계약을 지시한 점을 적발했다.

육설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김 사장을 직위해제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사장은 소개만 했을 뿐 최종 선택은 담당 부서에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2개월 범위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게 협상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해당 시설은 가동시간 대비 임대 실적이 6.53%에 불과했고 장기 대관 일정 또한 지연돼 무상 사용이 없었다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만성 적자를 타파하고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206억원의 매출 실적을 냈음에도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해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초대 광주관광공사 사장 공모를 앞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에 이명노 의원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윤리위원장 서용규 의원

광주시의회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와 윤리위는 제9대 광주시의회 제2기 특별위원회로, 임기는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예결위원회는 이명노·김용임·박수가·심창욱·안평환·이귀순·정다은·채은지·최지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예결위 위원장으로는 이명노(민주·서구 3)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용임(국민·비례)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위원회는 서용규·안평환·명진·박미정·박수가·심창욱·이귀순·이명노·채은지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서용규(민주·비례) 의원이, 부위원장은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명노 의원



서용규 의원

이명노 신임 예결위원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위태롭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용규 신임 윤리위원장은 "확대된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첫 공공 심아어린이병원에 광주기독병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오전 남구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린 '광주시-광주기독병원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박병란 광주기독병원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친환경농업' 확산 주력

권역별 전문 기술교육... 미생물·토양관리 강의 컨설팅도

전남도가 친환경기 향후 농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민의 소득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과 컨설팅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사단법인 전남친환경농업협회가 유기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기농업 교육을 4일과 18일 순천과 영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4일 순천 혁신농업센터에서 개최하는 1회차 교육은 미생물 전공 박사

인 홍석일 영광 우림바이오(주) 대표가 '미생물의 이해와 유기농업 토양관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미생물과 토양의 이해, 친환경 농자재의 작용 원리와 활용 방법, 미생물 발효의 모든 것 등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을 한다.

18일 영암 친환경농업 교육관에서 개최하는 2차 교육에선 '미생물 발효의 모든 것'을 주제로 홍석일 대표 강의에 이어 GCM농법 개발자인 김길용 전남대학교 교수가 '병해충 방제 및 작물수확량 증가'라는 주제로 GCM농법 원리와 사례, 생산

비 절감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작목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유기농업 교육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자조금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2022년엔 친환경경과수·과채 농가 49명(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14명·담양 친환경농업 교육관 3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농가 건의에 따라 지역별 고른 교육 기회와 편의 제공을 위해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에서 각각 1회씩 운영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 지속 협력해 관련 교육·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수산물식품 중화권 전진기지 마련

중 장쑤성 우시시에 6번째 상설 판매장 개점... 33개 품목 입점

전남도가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의 중화권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전남 농수산물 식품 전용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다.

개장식에는 전남도 중국사무소, 상설 판매장 현지 운영사인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 현지 G마트 관계자와 현지 식품 유통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개장식에는 중국에서는 여섯 번째, 전 세계 아홉 개 국가가 스물세 번째다. 중국 소비자와 한인을 대상으로 전남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는 2020년 설립해 현지 직영 거래처 130개 업체와 도매상·대리상을 통한 총 500여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고급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타오바오, 징둥, 사후슈 등

중국 최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한국산 식품을 유통하는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이다.

상설 판매장에는 김, 미역 등 해조류뿐만 아니라 건강 음료, 약과 등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33개 제품이 입점·판매된다. 현지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농수산물 수출제품 시범대로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의 효과적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에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개설한 상설 판매장이 안정적인 운영되도록 상설 판매장 판촉행사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